

한국공업규격 한자코드에 대한 고찰*

이 춘 태**

〈목 차〉	
I. 緒 言	5. 配列의 문제점
II. 用語의 定義에 대한 문제점	6. 日本字의 문제
III. 한국공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 漢字集合의 문제점	IV. KS의 誤譯
1. 漢字選定의 문제점	1. ㅍ이 잘못된 字
2. 字體의 문제점	2. 漢字 自體가 잘못된 字
3. 配列體系의 문제점	V. 結言
4. 略字의 누락	Abstract

I. 緒 言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문자코드일 것이다. 한자코드가 韓國工業規格으로서 KS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된 것은 1982년의 일이었다. 컴퓨터의 사용이 사무자동화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비수치적 업무로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은 한글 뿐만 아니라 한자처리기능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정한것이 '한국공업규격 정보교환용 한자부호계 KS C 5619-1982'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소형한자 시스템운용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情報交換用

* 이 연구는 1995학년도 공주대학교 교내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임.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漢字符號系'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한자수가 불과 1,692字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국가표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오류투성이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 자체의 문제점은 간과된채 주로 한자수 부족이라는 이유때문에 산업체에서는 'KS C 5619'의 채택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각 업체마다 자체 개발한 한자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한자수 및 부호가 일원화 되지 못하고 회사의 기종마다 각양각색으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실을 외면한 'KS C 5619'는 1985년 폐지되었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컴퓨터의 수요 및 전산처리 자료량이 급증하고, 또 行政電算網을 비롯한 國家基幹電算網의 조성으로 여러 컴퓨터 기종간의 정보교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써 한자부호의 표준화가 시급히 요청 되었다. 이러한 한자 코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韓國標準研究所의 주관으로 한자 코드의 표준화작업이 1년 넘게 진행되어 새로운 KS 표준코드로 '한국공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 :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한글 및 한자)가 1987. 3. 6. 공업진흥청에 의해서 告示되었다. 이것이 'KS C 5601-1987' 이다. 이는 KS C 5619에 비해 '정보교환용 한자부호계'에서 '정보교환용부호'로 명칭도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개정이 아닌 거의 상관성을 갖지 않는 새로운 제정이었다.

KS C 5601-1987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표준화 의지등으로 상당한 표준화를 이룩하게 되었으며 KS C 5601-1987은 그러한 표준화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KS C 5601은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는다. 그동안 특히 완성형 한글코드에는 많은 관심이 모아져 많은 비판의 글과 紙上論爭등을 통하여 조합형 코드도 국가표준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자코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식적반응이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는 그 숫자의 방대함으로 一瞥조차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자수의 부족을 느끼는 소리가 높아 ‘정보교환용 부호 확장세트’ KS C 5657-1991이 발표되었고 지금은 주요 한자문화권의 한자코드를 하나로 통일한 ‘國際統合漢字코드’까지 제정되어 KS로 채택¹⁾되었고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제통합한자코드의 한 축이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KS C 5601의 한자코드에 대해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用語의 定義에 대한 문제점

KS의 도형문자 8,224자 가운데에 한자는 4,888자로서 근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영역의 94자를 더하면 4,982문자의 영역이 漢字에 배정되고 있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자는 ‘용어의 뜻’에서 밝히기를 ‘한글과 병행해서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중국문자’²⁾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KS가 한자를 中國文字라고 단정하여 표현한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이 물론 中國에서 발생하여 발전된 문자 이기는 하지만 이미 근 2천년 동안 우리의 國字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文化遺産이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도외시한 채 단지 발생론적 의미로 中國文字라고 한다면 어찌 하여 한국국가표준의 공업규격이 반이상 중국문자로 되어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무어라 답할 것인가? 또한 한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문자 입에는 틀림 없지만 이들은 오랜 세월 각국에서 사용되는 동안 각국의 실정에 따라 새로이 造字되었다 든가(國字) 혹은 변화 또는 추가되었다 든가(國音字)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 든가(國義字) 한 자들이 적지 않고 실제 KS C 5601-1987의 한자집합 가운데에도 이러한

- 1) 한국공업표준협회, 국제문자부호계(UCS) 제1부: 구조 및 다국어 평면: KS C 5700-95. 서울: 한국공업표준협회, 1995.
- 2) 한국공업표준협회,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 KS C 5601-1987. 서울: 한국공업표준협회, 1987. p. 1.

韓國字 및 日本字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中國文字라고는 할 수 없다. 참고로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의 공업규격에서는 한자를 ‘주로 日本語의 自立語를 글로 써서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表意文字³⁾’라고 정의하고 있다.

Ⅲ. 한국공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 한자집합의 문제점

1. 한자선정의 문제점

KS의 한자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公正性과 衡平性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한자의 선정은 ‘정보교환용부호해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집단 A-C의 14가지 자료를 정리하여 분포도가 1 이상인 한자 7,345자를 4명의 위촉연구원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후 이 중에서 분포도, 빈도, 관련도 및 유용도 등을 고려하여 4,500여자 씩을 선정케하고,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同字異音字, 頭音法則關聯字, 略字, 俗字, 僻字, 同字 및 古字는 별도로 정리하여 선정하였으며, 4명중 2명 이상이 선정한 4,821자를 基本漢字集합으로 결정한 후, 이 중 2명이 선정한 459자를 중심으로 저빈도 문자의 삭제와 꼭 필요한 문자의 추가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추가 대상문자는 집단 D의 7가지 자료에 들어 있는 人名, 地名 및 技術用語用漢字를 별도로 조사해서 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KS의 한자의 선정은 일정한 기준없이 전적으로 專門要員들의 임의로 결정된 것이며 그 중 2명이 선정한 459자 중에서도 상당한 가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초의 방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포도에 의한 것으로 조사자료 중 분포도가 4이상인 4,635자에 분포도가 3인 한자 561자 중 빈도가 높은 253자를 추가시켜 4,888자를 만들었다.

3) 日本規格協會. 情報交換用漢字符號系(JIS X 0208-1983). 東京: 日本規格協會, 昭和58年(1983). p. 2.

그런데 국가규격에 포함시킬 한자의 선정을 분포도에만 의존하여 실시할 경우 중요한 한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차 전문위원회에서 1차의 4,888자 리스트를 검토한 후 정밀 검토작업을 다시 벌여 전문위원 및 위촉연구원 4명이 조사된 한자 7,345자를 검토한 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分布度, 關聯度, 有用度를 감안하여 4,500여자 썩을 선정하고 약간의 가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와같이 한 결과 侑, 脉, 昧, 薺, 炭, 糯, 儻, 灯, 糜, 始, 翻, 辟, 鮒, 妣, 筍, 孀, 偃, 轟 등 일일이 다 예거하기 힘든 빈도수 5-14의 고빈도자가 누락되었고 허다히 많은 저빈도자(1-2)가 수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포도보다는 전문위원들의 지식 및 경험에만 의존하여 字種을 선발한 결과로 아무리 전문위원들이 많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자종을 선정해 내기란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더우기 한자선정에 참고한 집단 A-집단 C까지의 14가지 자료도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동안 신중하게 연구하여 선정한 한자집단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들을 통한 정확한 빈도수조사 및 그 반영은 KS 한자코드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결과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차라리 분포도를 근거로 한 1차 리스트에 전문가의 손에 의한 보완작업을 거치는 편이 훨씬 공정성있고 공신력있는 KS 한자코드가 되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둘째는 僻字가 많다는 사실이다. KS 한자코드의 전모를 살펴보면 실제 수록된 자수에 비해 상당수의 벽자가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상기한 바와같이 전문위원들이 임의로 자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빈도수 1-2로 선발된 자들과 추가 대상 문자 중 人名, 地名用으로서 추가된 한자가 다수라고 생각된다. 이 중에는 特定人의 이름을 표기하기 위하여 채택된 자도 여러자 있으며 行政電算網 구축을 위해 전국의 里單位까지의 行政區域名에서 쓰이는 지명용한자를 모두 수록하는 과정에서 특정 里를 表記하기 위해 채택된 자도 다수가 있다.

셋째는 字數의 부족이다. KS가 비록 4,888자의 한자를 수록하고 있다고 하나 重出字를 제외하면 4,620자에 불과하다. 이 숫자로는 日常語를 표현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해도 모든 제층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이러한 문제는 진작부터 제기되어온 바로서 新聞協會 측에서는 8,000여자를 도서관 측에서는 15,000자를 전자출판계에서는 25,000자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의 코드표를 가지고 있는 新聞協會 측 8,000자를 제외하고는 이 수치가 어떤 자료에 의거하여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KS의 한자수가 부족하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자종을 어떻게 선별하여 추가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추가대상 한자라고 생각되는 것 몇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꼭 필요한 한자라고 생각되나 누락된 것으로서 韓國人の 姓氏를 들 수 있다. 1987년의 人口調査 결과(朝鮮日報, 1987년 12월 28일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모두 268姓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4字는 KS에 아예 누락되어 있고 3字는 異音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國家 코드가 그나라 국민의 姓氏도 다 수록하지 않았다면 말이 되겠는가?

누락자는 :

楔(설) : 1,952명(145순위)

鴛(력) : 243명(201순위)

郝(학) : 14명(255순위)

辻(십) : 5명(263순위)

KS에 수록은 되어 있으나 異音으로만 수록된 자는 :

樑(양) : 700명(168순위). KS는 '량'음으로만 수록

戀(난) : 17명(252순위). KS는 '란'음으로만 수록

4) 체신부. 표준한글, 한자코드 확장 및 처리방식 연구. 체신부(KSRI-91-57-IR), 1991. p. 55.

類(뇌) : 2명(268순위). KS는 '퇴'음으로만 수록

(2) 高校國語 및 漢字教科書에 출현된 자 가운데 KS에 누락된 자 및 이음으로만 수록된 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93자⁵⁾ 였다.

(3) 大法院이 정한 人名用漢字 중 KS에 수록되지 않은 자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상당수에 이른다.

(4) 마지막으로 地名用漢字 중의 누락자이다.

KS는 行政電算網을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地名用漢字를 포함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명용한자'라는 것은 행정구역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명한자를 말하는 것이다.

KS는 행정전산망을 위해서 전국의 洞·里 단위의 행정구역명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명한자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일반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韓國字를 비롯하여 다수의 僻字가 포함되었고 이런 자들을 수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KS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부 수록되지도 않았다. 筆者가 조사한 바로도 적지 않은 수의 지명용한자가 누락되었거나 異音으로만 들어가 있거나 음자체가 현지음과 다르게 수록되어 있었다.

KS를 제정할 당시에 지명용한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헌은 주로 「地方行政區域要覽」⁶⁾ 「全國 里洞. 邑面 行政區域索引」⁷⁾ 「全國行政區域要覽」⁸⁾ 3개 자료이다. 여기에 근거해 추출된 지명용한자는 1,561자로 집계되었는데 기본적인집합에 이미 1,500자 이상이 포함⁹⁾되어 있었으므로 지명용한자로만 추가된 것은 나머지 60여자 정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같이 빈

5) 李春澤. 韓. 日國家規格漢字코드의 統合研究. 中央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1. p. 237.

6) 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 : 1983. 서울 : 內務部 地方企劃課, 1983.

7) 韓國土地開發公社. 全國 里洞. 邑面 行政區域索引. 서울 : 韓國土地開發公社, 1986.

8) 大韓行政書士會. 全國行政區域要覽. 서울 : 大韓行政書士會, 1987.

9) '86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한글. 한자코드 표준화에 관한 연구"의 세부과제. 제2장 한자부호 표준시안 작성을 위한 연구. [대전] : 한국표준연구소, 1987. p. 14.

도수가 낮은 僻字들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지명한자중 누락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地名用漢字중 KS에 수록되지 않은 字

玫(매) : 全南 務安郡 務安邑에 ‘玫谷里’(매곡리)가 있다. 여러 문헌에 ‘玫谷里’(민곡리)로 나오는데 이는 誤謬이다.(KS는 이러한 誤記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玫’(옥돌민)자를 수록한 듯 하다)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¹⁰⁾ 「한국지명총람」¹¹⁾ 등에 ‘玫谷里’(매곡리)로 나와 있다. ‘玫’는 자전에 ‘매괴(玫瑰) 매’라 하였다.

磳(박) : 忠北 永洞郡 鶴山面에 磳溪里(박계리)가 있다. 문헌에 주로 ‘磳溪里’로 되어 있고 오직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과 國立地理院 발행의 5만분의 1지도에만 정확하게 박계리(磳溪里)로 되어 있다. ‘磳’은 ‘박돌’을 의미하는 韓國字¹²⁾이다.

驛(역) : 慶南 陝川郡 大井面에 ‘驛坪里’(역평리)가 있다. 諸文獻에 坪리로 나오는데 「地方行政區域要覽」(內務部 : 1987, 1990年版)과 「全國 里洞. 邑面 行政區域索引」에만 ‘驛坪里’로 나와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驛’은 제자전에 ‘산이름 역’이라 하였다.

浯(오) : 慶北 醴泉郡 虎鳴面에 ‘浯川里’가 있다. 「地方行政區域要覽」(1987, 1990)등 여러 문헌에 ‘浯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및 「한국지명총람」에는 정확하게 ‘浯川里’로 기록되어 있다.

10) 越智喩七 編纂.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 新舊對照. 京城 : 中央市場, 大正 6年 (1917), 1985年 太學社 編刻.

11) 한글학회 편. 한국지명총람, 14(전남편)(II) 서울 : 한글학회, 1982, p. 169.

12) 李春澤. 情報交換用符號에 포함된 固有漢字考. “文獻情報學報,” 第5輯. 서울 : 中央大學校 文獻情報學科. 1993. p. 166-171.

이상과 같이 KS에는 4자의 지명용한자가 누락되어 있다. 이는 조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오기 및 조사자의 철저한 확인부족에서 온 것이다.

2) 異音으로만 수록된자

KS에 수록은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다른음으로만 수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

琅(낭) : 忠北 淸原郡에 ‘琅城面’(낭성면)이 있다. KS에는 本音인 ‘랑’(53-42)에만 수록되어 있으나 자의 성격상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아 初聲으로 올 때는 ‘낭’으로 발음하게 되어 있다.

坨(단) : 全南 和順郡 北面에 ‘松坨里’(송단리)가 있다. KS에는 ‘담’(51-27)음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음은 ‘단’이다. 「訓蒙字會」(下 17)에는 ‘물어덜 단’으로 되어 있으나 「字典釋要」¹³⁾에는 ‘水打岸’(물이 언덕칠 담)으로 되어 있다. 현행사전 가운데 「大字源」¹⁴⁾에도 실려 있는데 동일하게 ‘물이 언덕칠 담’(波打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漢韓大辭典」¹⁵⁾에는 ‘붕괴할 단’으로 되어있고 본음은 ‘탄’이라 하였다. ‘坨’을 壇字 대응의 俗字라 하는 설도 있고, ‘壇’의 略書體가 아닌가 하는 說¹⁶⁾도 있다. 「康熙字典」¹⁷⁾에 그 음이 ‘他酣切’이고 讀는 ‘水打岸也’라 하였는데 中國音은 ‘T’an’이다. 그리고 日音도 ‘タン’(단)이다. 이로 보아 本音은 ‘담’이었으나 日本音의 영향으로 ‘단’이되었든지 아니면 ‘壇’의 代用俗字나 略書體로 쓰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사대상자료중 오직 ‘松坨’에서 유일하게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音を ‘담’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13) 池錫永 「著」, 字典釋要, 「漢陽」: 匯東書館, 1909. 1976年 亞細亞文化社 影印. p. 76.

14) 張三植 著. 大字源. 서울: 三省出版社, 1990. p. 460.

15) 李家源, 權五惇, 任昌淳 監修. 漢韓大辭典. 서울: 東亞出版社, 1982. p. 386.

16) 金鍾埴 著. 韓國固有漢字研究. 서울: 集文堂, 1983. p. 21.

17) 張玉書 等編. 康熙字典. 上海: 上海書局, 1985. p. 239.

畝(묘) : 全南 靈光郡에 ‘畝良面’(묘량면)이 있고 忠北 報恩郡 水汗面에 ‘畝西里’(묘서리), 慶北 盈德郡 寧海面에 ‘畝谷里’(묘곡리), 慶南 陝川郡 靑德面에 ‘畝里’(묘리)가 있다. 「大宇源」을 비롯 「漢韓大字典」¹⁸⁾,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 등이 모두 ‘이랑 묘, 밭이랑 묘’등이라 하고 本音이 ‘무’라 하였다. 그러나 「漢韓大字典」¹⁹⁾에는 ‘백평 무. 밭넓이 무. 밭이랑 무’라 했고 한국자로 ‘삼십평 묘’(三十坪爲畝)라 하였다. 이로 보아 ‘畝’는 본음이 ‘무’로 ‘경무법’(頃畝法). 백무지제(百畝之制)(國史大事典²⁰⁾)’등 ‘무’로 쓰였고, 인명으로는 「韓國人名大事典」²¹⁾에 김 무(金 畝), 이 숙무(李 叔畝)등 ‘무’품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보통 ‘묘’로 讀音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地名 역시 모두 ‘묘’로 讀音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S에는 ‘무’(51-78)음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泆(복) : 慶北 盈德郡 知品面에 ‘泆谷里’(복곡리)가 있다. 南韓에 ‘泆’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10군데가 넘는데 모두 ‘보’로 讀音하지만 盈德郡의 ‘泆谷’만은 ‘복’으로 독음한다.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에도 ‘복곡리(泆谷里) [보골·보곡·복곡] : 본래 영덕군 북면의 지역으로써, 보가 있으므로 보골 또는 보곡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복곡이 되었으며, 1914년 行政區域 폐합에 따라 복곡동(리)이라 해서 지품면에 편입됨’이라 하였다.

‘泆’는 본래 ‘복’과 ‘보’로 二音字인데 복으로 읽을 때는 ‘回流’의 의미로 ‘물 돌아 흐를 복’등으로 訓하며 ‘나루 복’(배가 정박하는 곳)이라고도 훈한다. 그리고 ‘보’로 讀音할 경우는 國字로서 ‘보 보·보마기 보’(引水灌田)등으로 訓한다. ‘보’(泆)란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독을 쌓고 물을 막아 두는곳’(「漢韓大字典」: 民衆書林)을 말한다. 현행자전들에 모두 國字로 되어 있다. KS에는 ‘보’(60-39)품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18) 民衆書館 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서울 : 民衆書林,

19) 金赫濟, 金星源 編著. 漢韓大字典. 서울 : 明文堂, 1991. p. 800.

20)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 完璧 新改正版. 서울 : 政裕社, 1978. p. 67, 560.

21) 韓國人名大事典 編纂室.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 新丘文化社, 1986.

鯉(이) : 忠北 槐山郡 甘勿面에 '鯉潭里'(이담리)가 있다. KS에는 本音인 '리'(55-79)로만 수록되어 있으나 '琅'(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字의 성격상 頭音法則의 적용을 받아 初聲으로 올 때는 '이'로 讀音하게 되어 있다.

則(즉) : 大田廣域市 儒城區에 '九則洞'(구즉동)이 있다. KS제정 당시에는 忠南 大德郡 '九則面'(구즉면)이었으나 法律 第 4049號로 大田直轄市가 설치되면서 1989年 1月 1日字로 大田直轄市 儒城區 '九則洞'(구즉동)으로 편입되었다. '則'은 '즉'과 '칙'으로 讀音하는 二音字이다. 본래는 '즉'과 '축'(「雅言覺非」²²⁾에도 '則則異音. 助辭曰 즉. 法則曰 축이라 하였다)이었는데 '축'이 '칙'으로 변환것은 ㅅ, ㅆ, ㅈ 子音下에서 '一'母音이 'ㅣ'母音化하는 前舌母音化現象에 의한 것이다.

현행자전들에도 1. 곧 즉. 2. 법 칙(법칙 칙)이라 하여 '곧'의 뜻으로는 '즉'이고 '法'의 뜻으로는 '칙'이라 한다. KS에는 '칙'(86-46)음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杻(축) : '杻'은 '싸리'를 뜻하는 國義 國音字로 일찍부터 지명등에 많이 쓰였다. 本音은 '뉴'이고 頭音法則이 적용되어 初聲으로 오면 '유'가 된다. 그러나 '뉴'가 頭音으로 오는 경우는 좀체로 없고 '축'音으로 초성에 오는 지명이 다수인 것을 보면 이는 誤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杻'(축)이 들어가는 지명으로는 慶南 泗川郡 杻洞面(축동면), 忠南 舒川郡 韓山面 杻東里(축동리), 全北 井邑郡 七寶面 杻峴里(축현리), 京畿道 坡州郡 炭縣面 杻峴里(축현리), 江原道 三陟郡 遠德邑 杻川里(축천리), 全南 咸平郡 羅山面 三杻里(삼축리)등이 있다. KS에는 '뉴'(59-78)와 '유'(74-84)에 重出하고 있으나 '축'音으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峙(티) : '峙'는 '티'와 '치'二音으로 讀音되고 있다. '峙'는 「新增類合」에 '峙 우득홀 티'(下 59)로 나오고 있으나 「字典釋要」에 '산 옷득할 치'라 하였고

22) 鄭若鏞 原著 : 金鍾權 譯註. 雅言覺非. 서울 : 一志社, 1976. p. 284.

현행 사전들도 모두 ‘치’라 하였다. 이는 壬亂 이후 진행된 口蓋音化의 영향으로 ㄷ > ㅈ 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地名語에서 만든 현재도 ‘티’와 ‘치’가 兩立하고 있다. ‘峙’가 들어가는 지명은 전국에 걸쳐서 무수히 많지만 대부분 ‘치’로 발음하는데 忠北地方에서는 예외없이 ‘티’로 발음되고, 경상도와 충남 일원에도 ‘티’음이 상존하고 있다.

“‘티’는 현대국어에서 自立形態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오직 地名의 後部要素로만 쓰이고 있는 語辭로 忠北 지역에 걸쳐 279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全南地方에서는 모두 ‘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忠北 地名語의 口蓋音化에서 가장 특이한 존재는 ‘티(峙)’이다. 全南地名에서 ‘치’로 사용되는 ‘峙’가 t^h - > C^h / -[i]의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치’로 변동되지 않고 ‘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명이 갖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의 하나인 강력한 保守性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²³⁾ KS에는 ‘치’표음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이상으로 KS에 수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명에서 쓰인 음과는 다른 異音으로만 수록되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들은 조사대상자료가 주로 한자로만 되어 있는데 철저한 事實音의 확인없이 字典音으로만 수록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 字體의 문제점

KS는 그 해설에서 ‘자체는 강희자전에 준한 정자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분야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약자 또는 속자의 사용과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이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볼 때 KS는 字種만을 선발해 놓고 字體에 대해서는 사용분야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이를 허용하여 略字 또는 俗字의 사용을 자율로 한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23) 姜秉倫. 忠清北道の 地名語 研究. 仁荷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p. 93, 157.

이는 잘못이다. 이는 국가의 言語政策과도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표준코드의 자체를 사용분야에 따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단 말인가. 또 그 많은 異體字 중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하여 쓴단 말인가. 또 그럴 경우 야기되는 혼란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자부호 표준시안에 포함된 略字, 俗字, 古字 및 기타문자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니며 그 실상을 조사해 보면 1. 正字만 채택한자. 2. 古字 및 本字만 채택한자. 3. 古字 및 本字와 正字를 함께 채택한자. 4. 俗字만 채택한자. 5. 正字와 俗字를 동시에 채택한자. 6. 同字를 동시에 채택한자. 7. 略字와 正字를 동시에 채택한자 및 略字만 채택한자²⁴⁾ 등 아주 다양하여 간단히 언급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자체에 대하여는 한자자체가 갖는 특성 즉 正, 俗, 略字등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하고 상대적이며 사전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서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KS는 어떠한 원칙이나 일관성도 없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고 밖에 표현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 配列體系의 問題點

KS 漢字코드의 配列體系는 한글 音順體系이다. 그런데 문제는 同字異音字 및 音韻法則 또는 습관에 따라서 품이 변하는 字를 KS는 모두 別字로 취급하여 각기 다른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 결과 코드표에는 同一字가 重出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2회 중출자가 257자, 3회 중출자 4자, 심지어는 4회 중출자도 1자가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字種으로서 262종, 字數로는 530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음운변화에 의한 것이 207자

24) 李春澤. 韓. 日國家規格漢字코드의 統合研究. 中央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1. pp. 163-171.

이며 同字異音字가 58자이다.

동자가 음의 異同에 따라 각기 다른 코드번호를 가지고 중출한다는 사실은 동일자의 경우라도 음이 다를 경우에는 모두 별자로 취급되는 결과를 낳았고, 동일자에 4개까지 음을 부여한 것은 한자음을 그것만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이것은 表意文字로써의 한자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KS 한자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이 한자음을 고정시킬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코드의 運營法은 規格事項이 아니다.

동자이음자 및 두음법칙 관련자 또는 특정어에서만 관습음으로 나는 것 등은 규격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이는 실제 코드의 운영법에 속하는 것으로 규격에서는 자종을 선발하고 코드값을 주기위한 최소한의 배열기준만을 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나머지는 S/W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것들을 코드로 처리한 결과 임시 입력에 있어서는 약간 편의로운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S/W의 개발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 코드영역의 낭비가 심하다.

KS는 同字異音字를 중복 배열 함으로서 불필요하게 코드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다. 즉 2회 중출자로 해서 257, 3회 重出字로 해서 8, 4회 중출자로 해서 3, 모두 268개의 코드가 중출자에 의해서 낭비된 것이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제한된 영역으로 효율성을 첫째로 고려해야 하는 표준코드에서의 배열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3) 다양한 漢字音의 수용이 불가능하다.

한자음은 다양하다. 중국, 일본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간단하며 대부분이 一字一音이라고 하는 한국한자음도 알고 보면 대단히 복잡하다. 참고로 한 자전을 중심으로 KS 한자코드에 수록된 한자의 음을 조사해 보면 현실음이 아닌 본음 및 음운법칙에 의해 이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2음자가 645자, 3음자가 139자, 4음자가 28자, 5음자가 7자, 6음자가 1자, 7음자가 1자²⁴⁾였다.

이들 한자음은 동이출판사 발행의 「漢韓大辭典」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하였고 미수록자는 「大字源」을 참고로 하였으며 그 외 자전 미수록의 慣習 음등을 약간 추가한 것이다. 이 숫자가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한자음은 자전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고 또 자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도 허다히 많아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KS 중출자중 音韻法則에 의한 중출자를 제외한 동자이음자가 58자임을 볼 때 그 10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현실에서 모두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KS에서 동자이음자로 채택한것보다 훨씬 통용성이 많은 자도 적지 않으며 비교적 단순하다는 한국한자음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예는 될 것이다. 따라서 KS처럼 음을 고정시킬 경우 비록 통상적인 것이고 간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KS 채택음 이외에는 그 처리가 곤란하다. 그리고 고정된 한자음이라 할지라도 그 수효가 워낙 많아 한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듯이 그 음도 모두 수용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며 어느정도 선에서 제한한다 하더라도 동자이음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한된 규격에 그만큼 자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4) 李春澤, 韓, 日國家規格漢字코드의 統合研究, 中央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1. pp. 241 - 247.

(4) 국어 音韻法則의 다양성이다.

이는 국어의 音韻法則이나 習慣 등에서 오는 결과로 同一字가 경우에 따라 서 ㅍ이 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일정한 규칙하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예외적인 것이 많아 일일이 예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에 나와있는 사항만을 가지고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 맞춤법’ 제10, 11, 12항에 규정하고 있는 頭音法則이다. KS의 重出字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203字가 두음법칙에 의한 중출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字가 다수이며, 또한 頭音法則이 적용되는 가운데에도 예외적인 것이 많다.

둘째, ‘한글 맞춤법’ 제30항에는 두 음절로 된 漢字語인 庫間, 糞房, 數字, 車間, 退間, 回數 등은 사이시옷을 받쳐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 등으로 표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현할 길이 없다.

셋째, ‘한글 맞춤법’ 제30항에는 ‘漢字語에서 本音으로도 나고 俗音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하였는데 KS에서 다루어진 것은 ‘擎’ ‘諾’ ‘寧’ ‘怒’의 경우 뿐으로 많은 예가 누락되었다.

한글 맞춤법에서 예시한 것 가운데 누락된 것만도 다음과 같다.

본음으로나는것	속음으로 나는 것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그 이외에도 표준어사정원칙 제11항의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主着’은 ‘주착’이 되고 ‘支離’는 ‘지루’가 된다.

기타 한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상 또는 어떤 특수한 이유로 字典音과는 상관없이 읽히는 字들이 적지 않다. 이는 字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複字語에서의 讀音 때에 만 그 字음이 특수하게 變異되는 漢字語를 말한다. 예를 들어 ‘內’는 ‘內侍’일 경우에는 ‘내’이지만 ‘內人’인 경우에는 ‘나’가 되고, ‘寺’도 절을 이야기 할 때는 ‘사’이지만 司僕寺, 軍器寺 등 官職名을 지칭할 때는 그 음이 ‘시’가 된다. 그리고 ‘徵’(징)도 國樂의 五音을 나타낼 때는 ‘치’가 되니 KS 漢字코드로는 國樂五音階도 한자로는 표기하기가 어렵다. 또한 梵語, 滿蒙語 등의 漢譯語에서 原語의 영향으로 특수하게 읽히는 字음에 대한 것이다. 이는 주로 佛教語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菩提樹, 南無阿彌陀佛, 布施, 陀羅尼, 道場, 娑婆, 婆羅 등 상당수에 이르나 KS에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지만 일일이 예거하지 않거니와 문제는 이러한 音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면서도 字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가려내기 힘들며, 따라서 KS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5) 入力時 音を 借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는 漢字의 音を 제한하여 고정시키고 音이 다를 경우는 別字로 처리함에 따라서 KS에 수록되어 있는 漢字라 할지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音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漢字 자체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어,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漢字가 다른 音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하고자 해도 그 音を 借用해야 하는, 즉 사용하고자 하는 音과 다른 KS 收錄音을 차용해서 入力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는 KS에 수록되지 않은 모든 同字異音字 및 음운법칙에 의해서 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 한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본래는 그 한자에 그 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S에서 음을 제한 고정 시킴으로서 KS 수록음 이외의 음은 없는 결과가 되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으

며, 설혹 다른 음을 차용하여 입력한다 해도 본음으로 입력하는 것과는 개념상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결국 또 검색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색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배열체계를 채택한 KS의 당초 목적과는 상치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명용 한자인 ‘峙’(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峙’는 현재 지명에서 ‘치’와 ‘티’ 양음으로 읽히고 있다. 그러나 KS에는 ‘치’음으로 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티’음을 쓰는 지명에는 불가피하게 ‘치’음을 차용하여 입력해야 하며, 이렇게 할 경우 font를 빌리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검색시 ‘치’가 되기 때문에 지명이 변경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또한 동자이음자라는 것이 단어의 구성에 따라서 그 음을 달리하는 것들로 KS와 같이 字꼴을 고정시킬 경우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契’은 KS에 ‘계’(44-88)와 ‘글’(48-48)에 중출되어 있다. 이 자는 본래 4字源로서 「大字源」에 1. 계약할 계. 2. 나라이름 글. 3. 근고할 결. 4. 사람이름 설 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字典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다. KS는 이 중 ‘계’와 ‘글’꼴을 채택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중 ‘글’꼴은 訓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名 또는 種族名으로, 遼國을 세웠던 部族名인 ‘契丹’ 및 그와 관련된 단어에서만 쓰이는 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字가 反切로는 ‘欺訖切’로 비록 ‘글’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모두 ‘기’로 읽히고 있다는 점이다. 「國史大事典」에서 비록 ‘글안’(契丹)을 표제어로 삼고 있으나 국사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과서가 ‘거란’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國語辭典²⁶⁾ 등도 모두 ‘거란’을 標題語로 삼고 있다. 이 경우 KS가 ‘글’꼴을 채택한 것은 이 字의 쓰임으로 보아 ‘契丹’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와는 달리 정확한 표기가 어려우며, 설혹 ‘글’꼴으로 표기한다 해도, ‘丹’의 字가 또 문제가 된다. ‘丹’ 역시 ‘단’(51-01)과 ‘란’(53-14)에 중출되어 있지만 이 경우는 ‘안’이 되기 때문에 KS에 ‘契’과 ‘丹’이 각각 2회 중출하였지만 ‘거란’으로 표기하기도 어렵고 ‘글안’으로 표기하기도 어려워 의도했

26)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修正增補版. 서울: 民衆書林, 1982. p. 129

던 契丹은 엉뚱하게 ‘글단’ 또는 ‘글란’으로 밖에는 표기 할 수 없다. 이러한 예도 일일이 예거하기 어렵지만 상당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경우에 따라서는 음을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는 첫째, 正音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字典음이 채택되지 않고 음운법칙에 의한 變音이 채택된 경우로 이는 실제로 자전음을 변경시키는 결과가 되고있다. ‘涅’(열 : 70-78), ‘獐’(영 : 71-30) 등은 그 正音이 각각 ‘녘’, ‘녕’임에도 불구하고 두음법칙에 따른 변음인 ‘열’, ‘영’만 채택되었고, 반면에 ‘拈’(념 : 50-25)은 주로 ‘엽’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자전음인 ‘념’을 따르고 있으며 ‘蘭’(료 : 55-02)는 그 자전음이 ‘뇨’이며 두음법칙이 적용되면 ‘요’가 되어야 하나 엉뚱하게도 ‘료’음률 채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는 同字의 正俗字가 음을 달리하여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甬’는 ‘땡’의 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자인 ‘땡’는 ‘조’(80-32)로 하고 속자인 ‘甬’는 ‘적’(78-52)으로 하여 별자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땡’에 ‘적’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쓰임이 거의 없고 또한 本字와 俗字를 각각 그 음을 달리하여 別字로 취급함은 옳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음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아직 정착되지 못한 음도 많다는 점이다. 多音字가 아닌 경우에도 定着音化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俗音化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자전마다 음이 달리 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菅’(관 : 46-25)은 자전에 따라 ‘간’과 ‘관’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음으로 독음되는 것들을 어느 한음으로만 고정시키는 것도 문제가 된다.

(7)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코드영역의 제한으로 다양한 한자음을 모두 수록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음순배열체계라 할 지라도 모든 음을 수록하기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용도가 높은 유용한 음을 선별하여 코드값을 줄 수 밖에 없는데 객관성

있게 그것들을 선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음이 누락되고 특수하게만 쓰이는 음이 채택된다든지, 잘못된 음으로 채택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점에서 언급된 것들도 모두가 음순배열체제에서오는 것으로 代表音配列이나 部首, 劃數順配列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음순배열체제를 고수하는 한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8) 통합코드에 장애가 된다.

한자코드의 국제적인 추세는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한자코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적인 정보유통을 더욱 원활히 하고 코드영역을 절약하며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자코드를 최초로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것은 일본인데 현재 第3次規格²⁷⁾ (JIS X-0208-1990)이 나와 있으나 모두 代表音 또는 部首, 劃數順配列이고, 중국은 1981년에 「信息交換用漢字編碼字符集-基本集」²⁸⁾ GB(Guojia Biaojum) 2312-80을 中華人民共和國 國家標準으로 제정하였는데 1수준은 漢語拼音字母順配列이고, 2수준은 部首·劃數順 배열이다. 그리고 자유중국은 1986년에 「通用漢字標準交換碼」 CNS 11643-1986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였는데 문자배열은 총획수, 부수, 부수내의 획수순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표준코드가 자국사정에 따라 배열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자형의 문자를 한번 배열하는 데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러나 KS 한자코드 만은 가장 늦게 출현 했음에도 기존의 것들과는 달리 같은 자형의 한자를 경우에 따라 2-4번 배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의 코드표준화 동향은 CJK-JRG를 주축으로 한자코드의

27) 日本規格協會. 情報交換用漢字符號系(JIS X 0208-1990). 東京: 日本規格協會, 平成 2年(1990).

28) 中國國家標準總局. 中華人民共和國國家標準信息交換用漢字編碼字符集, 基本集. (GB 2312-80). 北京: 國家標準總局, 1981.

통합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이미 통합코드가 출현하였고 그것이 KS화 되어 컴퓨터에서의 구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국제간 정보유통이나 S/W개발에 중출자 문제는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4. 약자의 누락

KS는 「康熙字典」에 준한 正字體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略字를 제외하였다. ‘약자는 현재 사회에서 필사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시각적인 면에서 복잡한 문자의 인식을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반면 사전 및 옥편은 정자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신문이나 공문 등에도 정자가 많이 사용되며 약자와 정자를 함께 배열할 경우 추가로 얻는 정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들과 연구진은 100자 정도의 고빈도 약자 리스트를 만들고 이 문자들의 추가 여부를 가지고 약자의 모든 장단점을 고려해 가며 상당히 고심하였다. 결국 약자의 사용은 우리나라 어문정책을 세우는 문교부에서도 현재 권장하지 않고 있고 이 연구의 목적은 필사체가 아닌 컴퓨터용 부호를 위한 한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한자부호 표준시안에는 꼭 필요한 몇자를 제외한 약자는 추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²⁹⁾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모든 약자가 제외되고 ‘万’과 ‘宕’만이 예외적으로 채택되었다. ‘万’은 인명에, ‘宕’은 지명에 사용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자료 중 ‘万’이 인명으로 쓰인 것은 「韓國人名辭典」³⁰⁾(聯合通信社)에 3인(金相万, 徐在万, 李万和)이 있는데 그래도 세인의 귀에 익은 것은 ‘金相万’ 정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명으로 쓴 약자는 어찌 ‘宕’ 뿐이겠는가? 「地方行政區域要覽」에서 만도 ‘糸, 双, 並, 台’등 상당수의 범용성 있는 약자가 쓰였는데도

29) 한국표준연구소. '86과학기술특정연구개발사업 “한글·한자코드 표준화에 관한 연구”의 세부과제 제2장 한자부호 표준시안 작성을 위한 연구(KSRI-87-37-IR) [대전]: 한국표준연구소, 1987, pp. 14-15.

30) 韓國人名辭典. 聯合通信. 서울: 聯合通信社, 1984.

모두 제외하고 유독 ‘宐’만 채택(실제는 ‘浜’도 채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약자 사용을 실증하는 또하나의 예로서 필자가 조사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KOMARC D/B 191,312레코드와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을 대상으로 출현 한자 및 빈도수를 조사한 文獻情報用漢字 5,680자중 단 1회 쓰인 자가 1,078자, 2회 쓰인 자가 568자이며, 10회 이상 쓰인 자가 2,680자인 반면, ‘假’는 10회, ‘糸’는 21회, ‘証’은 23회, ‘虫’은 무려 277회나 쓰이고 있음³¹⁾을 볼 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약자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와 문자라는 것은 세월따라 변해가는 것이다. 한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탄생한 초기형태인 甲骨文으로 부터 鍾鼎文, 大篆, 小篆을 거쳐 隸書·楷書·行書의 순으로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계속 변천해 왔고 그 과정에서 筆劃을 簡化한 俗字등이 출현하였으며 오늘날엔 다시 簡體字와 略字로 변천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외 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필획을 간화하여 필사에 편의를 도모한 것이 었다. 즉 ‘漢字의 歷史는 곧 簡化的 歷史라 하리만큼 單純化하려는 경향이였다.’³²⁾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中國의 간체자나 요즈음 흔히 이야기 되는 약자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약자의 경우는 주로 속자라는 이름 으로 불리어 왔을 뿐 오랜 세월의 외중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으로 어제 오늘 특정한 특정국에서 만든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실효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미 1967년 문교부가 상용한자 1300자 중에서 5백 42자를 골라 「漢文略字試案」(東亞日報 1967. 11. 11자에 보도)을 마련한 적이 있고, 이후 여러 신문에서도 社說 및 記事를 통하여 약자의 제정 및 사용을 주장한 바 있으며, 韓國語文教育研究會에서는 漢字略字研究小委員會를 구성하여 181자(자중 89자, 계열자 92자)

31) 李春澤 外·文獻情報데이터베이스 漢字코드의 標準化 方案 研究. 1990년도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특별과제)보고서, 1991.

32) 成元慶. 中共에서 現用하는 簡化字研究. 人文科學論叢, 第 13輯. 서울: 建國大學校附設人文科學研究所, 1980. p. 41.

를 선정케하여 이를 각 언론기관에 보내 그 사용을 권고한 바(1981. 10. 1.)있었는데 이는 조상전래의 古典(均如傳, 各種諺解文獻, 大東輿地圖, 大東地志, 各袖珍本 등)과 국제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中國文獻(宋元以來俗字譜, 中文大辭典)등을 상고함으로써 俗字·略字가 고대로 韓·中 양국의 공통적인 것임을 재확증하였으며 본연구회의 1백 81자의 약자도 이에 근거하여 제정³³⁾하였다는 것이다.

1981년 4. 16자 朝鮮日報에서 徐康和씨는 '略字時代로 가자'는 제하의 글에서 正字냐 俗字냐를 따지지 말고 쓰고 읽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획수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180자 정도를 약자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고 176자의 「漢字略字一覽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드디어는 1983. 4. 26부터 조선일보의 장기적인 계획아래 우선 1차적으로 한자약자 90자를 제목과 본문의 구별없이 쓰기로 결정(1983. 4. 26 朝鮮日報 社告)하였고 「제1차 略字表」90자를 게재하였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결정은 국내 매스컴과 일본신문까지 가세한 격렬한 약자논쟁 및 약자의 국적논쟁을 불러 일으켰는 바, 이 논쟁은 조선일보의 약자고증과 이러한 사실을 일본 언론에 송고했던 黑田씨의 해명으로 끝이 났고, 이후 약자의 사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발행부수 200만이 넘는 국내 최대 일간지의 약자 채용은 약자의 사용 및 보급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어찌피 漢字文化圈의 추세가 한자의 간략화이고, 약자가 어느 개인 어느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산물이고 보편화된 것임을 생각할 때 그것이 문자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면 國家標準에서 과감히 채용하여 국민 문자생활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5. 배열의 문제점

KS 漢字코드의 배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명확한 배열의 세부 규정

33) 南廣祐. 漢字略字의 국적追跡. 月刊朝鮮. 1月號. 서울: 朝鮮日報社, 1984. p. 193.

이 없다는 것이다. KS 漢字 코드의 배열은 가나다의 한글 음 순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4,888字全體를 한글음으로 분류하고 同一音내에서는 部首順에 따라서, 그리고 동일음, 동일부수의 것들은 획수순에 따라서 부호표에 배열하였다. 그러나 동일음 동일부수까지만 규정하고 동일음, 동일부수에 同劃의 字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KS 한자코드에는 동일음, 同一部首에 同劃數의 字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배열 규정이 없어 무질서 하게 배열되어 있는 듯하다. 제정 당시 어떤 원칙이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밝혀놓지를 않았다. 예를 들어 KS의 架, 枷, 柯는 同一音, 同一部首의 同劃字들인데 「康熙字典」에는 ‘柯, 枷, 柯’,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는 ‘柯, 枷, 架’, 「漢韓大字典」(民衆書林)은 ‘枷, 柯, 架’의 順으로 각각 달리 배열하고 있다. 「康熙字典」을 따랐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字形에 따랐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적어도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어떤 일관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는 오류가 많다는 점이다. 오류는 부수를 혼동하여 배열에 착오를 일으킨 것과 획수를 잘못 계산하여 배열에 착오를 가져온 것 등이 있다.

1) 부수의 착오로 잘못 배열 된자

蠅(42-73) 과 褐(42-72) : 蠅은 虫의 9획으로 衣의 9획인 褐과 순서가 바뀌었음.

盲(56-78) 과 盟(56-79) : 盲은 目的 3획으로 皿의 8획인 盟과 순서가 바뀌었음.

濕(67-05) 과 拾(67-06) : 濕은 水의 14획으로 手의 6획인 拾과 순서가 바뀌었음.

陽(69-53) 과 量(69-54) : 陽은 阜의 9획으로 里의 5획인 量과 순서가 바뀌었음.

輦(70-68) 과 蓮(70-69) : 輦은 車의 8획으로 艸의 11획인 蓮과 순서가 바뀌었음(이들은 두음법칙관련자로 ‘련’음에도 나오나 ‘련’음에서는 맞게 배열되었다).

獵(71-06) 과 燁(71-07) : 獵은 犬의 15획으로 火의 12획인 燁과 순서가 바뀌었음.

禮(71-63) 는 示의 13획으로 目的의 9획인 睿(71-58)와 禾의 13획인 穢(71-59)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옳음.

寥(72-79) 와 寮(72-80) : 寥는 宀의 11획으로 宀의 12획인 寮와 순서가 바뀌었음(이들 역시 두음법칙관련자로 本音에는 옳게 배열되었다).

亏(74-07) 은 자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이나 ‘二’部인 于의 異體字이기 때문에 二部 1획으로 하여 韻(74-05)과 蔚(74-06)의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이 옳은 배열이 됨.

狄(78-58) 과 熨(78-59) : 狄은 犬의 4획으로 火의 4획인 熨와 순서가 바뀌었음.

姝(81-15) 는 女의 6획으로 大의 6획인 奏(81-20)와 畀의 5획인 亩(81-21)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옳음.

曾(81-84)과 拯(81-85) : 曾은 曰의 8획으로 手의 6획인 拯과 순서가 바뀌었음.

籩(83-35)과 粢(83-36) : 籩은 糸의 14획으로 米의 7획인 粢과 순서가 바뀌었음.

側(86-16)과 仄(86-17) : 側은 人의 9획으로 人의 2획인 仄과 순서가 바뀌었음(KS는 仄을 宀의 2획으로 계산한 듯하다).

歡(92-22)은 欠의 18획으로 木의 6획인 桓(92-24)와 水의 9획인 渙(92-25)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옳음.

暈(93-27)은 日의 9획으로 土의 14획인 壘(93-21)과 火의 7획인 焮(93-22)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옳음.

2) 획수의 착오로 잘못 배열된 자

寧(50-27)과 霽(50-28) : 寧은 宀의 11획, 霽은 10획으로 순서가 틀렸음.

倪(71-50)와 例(71-51) : 倪는 人의 8획, 例는 6획으로 순서가 틀렸음.

飈(88-92)와 飄(88-93) : 飈는 風의 12획, 飄는 11획으로 순서가 틀렸음.

이상은 KS의 배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 KS는 한글 음순 배열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음 내에서는 部首·劃數順 배열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일 부수의 동일 획수자들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고 배열에 있어서의 오류가 많았다. 배열에 있어서의 오류는 주로 部首의 인식 착오와 劃數 산정을 잘못된데서 온 것으로 부수의 식별 착오로 잘못 배열된 자가 16자, 획수 산정 착오로 잘못 배열된 자가 4자였다.

6. 日本字자의 問題

한국공업규격 정보교환부호 KS C 5601에는 두 자의 일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𩺰’과 ‘𩺱’이 그것으로 ‘𩺰’은 ‘일자로서 우리나라 지명에 사용’하고 ‘𩺱’은 ‘일자로서 우리나라 병명(病名)에 사용³⁴⁾한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鰵·𩺰·𩺱·𩺲·焮·𩺳·𩺴 7자의 일본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일본자는 왜 4,888자의 한자집합에 포함되어는가? 이들 중 日本字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KS도 인정한 ‘𩺱’을 제외한 6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鰵(43-30: 강)은 형성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魚’와 음을 나타내는 ‘康’의 합자로서 日音 ‘カウ’(또는 コウ)로 海魚의 일종인 ‘아귀’를 나타낸다. 「大漢和辭典」³⁵⁾에 ‘鰵’은 ‘國字로서 ‘鰵鰵은 海魚의 하나’라 하였고 「漢和辭典」³⁶⁾(旺文社) 역시 ‘鰵’은 ‘國字로서 魚와 音을 나타내는 康으로 부터 이루어진 形成字로, 「鰵鰵’은 琵琶를 닮은 體形으로 둥글고 넓적한 머리와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頭上의 긴 突起를 움직여서 小魚를 쫓아 捕食한다. 특히 ‘겨울에 맛이 좋으며 琵琶魚, 華臍魚라고도 한다.’라 하였다.

34) 한국표준연구소. '86과학기술서 특정연구개발사업 “한글·한자코드 표준화에 관한 연구”의 세부과제. 제2장 한자부호 표준시안 작성을 위한 연구. [대전]: 한국표준연구소, 1987. p. 21.

35) 諸橋徹次 著. 大漢和辭典. 修訂版.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 59年(1984)

36) 赤塚 忠, 阿部吉雄 編. 漢和辭典. 改訂新版. 東京: 旺文社, 1989.

「新字典」에 日字로서 ‘鰺(アンコウ) 셋정이 華鰺魚’라 하였고, 「大宇源」은 日字로서 ‘천징어 강(鰺鰺)이라 하였다. 그리고 「漢韓大字典」(民衆書林)은 漢字로서 ‘아귀 강(鰺鰺)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明文堂)은 日字로서 ‘아귀 강으로 鰺鰺은 海魚의 일종으로 日名 アンコウ’라 하였다. 이로 볼 때 ‘鰺’은 日字로서 ‘鰺鰺’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새우리말큰사전」³⁷⁾ 등에 鰺鰺은 ‘아귀’를 말하며 鰺鰺網, 鰺鰺科, 鰺鰺魚, 鰺鰺魚目등이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鰺’은 일자이지만 한국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는 자인 듯하다.

둘째, ‘峠’(63-39: 상)자는 회의자로서 산길의 오르막(上)과 내리막(下)의 경계가 되는 곳 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훈은 없고 訓은 ‘とうげ’(도우게)라고 한다. 1 산마루·고개. 2. 절정기·고비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고개 상·재상(山嶺)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明文堂)에는 ‘언덕길 꼭대기 상(坂路頂上)·고비 상(病等危險時期)이라 하였다. 의미는 물론 일본에서 쓰는 것과 같지만 ‘상’이라는 그 음은 한국에서 만든 것이다. 「新字典」에는 ‘峠(タウゲ)재嶺’이라고만 나와 있다. 그러나 「字典釋要」에 日字로서 ‘고개 상’이라 한것을 보면 造倣의 역사도 꽤 오래인듯 하다.

필자는 언제 어디서부터 연유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치만 다수의 문헌에서 ‘峠’(언덕치)를 ‘峠’으로 오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內務部가 발행한「地方行政區域要覽」³⁸⁾은 물론 「韓國行政區域總鑑」³⁹⁾, 「全國 里洞. 邑面 行政區域索引」, 一般 地圖冊, 심지어는 國立地理院 발행(1983)의 5만분의 1 地圖 郡誌에 까지도 誤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KS가 제정당시 참고한 몇가지 문헌에서 발췌한 오기의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申琦轍, 申瑛轍 編著. 새우리말큰사전. 增補版. 서울:三省出版社, 1980. p. 2199.

38) 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 1987. 內務部 地方企劃課, 1987.

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內務部 地方企劃課, 1990.

39) 韓國行政區域總鑑編纂會. 韓國行政區域總鑑. 서울: 韓國行政區域總鑑編纂會, 1989.

각종 文獻에 나타난 '峯'의 誤記 實狀

行政區域名	한글명	朝鮮全道 府郡面里稱名簿一覽	行政區域名引	地方行政區域誌 (1987)	韓國行政區域誌 (1989)	地方行政區域誌 (1990)	國立地理地圖	한국지명총람
江原道 洪川郡 三馬峰里	삼마치리	三馬峰里	三馬峰里	三馬峰里	三馬峰里	三馬峰里	三馬峰里	삼마치리
北行面 酒飲峰里	주음치리	酒飲峰里	酒飲峰里	酒飲峰里	酒飲峰里	酒飲峰里	酒飲峰里	주음치리
東面 德峰里	덕치리	德峰里	德峰里	德峰里	德峰里	德峰里	德峰里	덕치리
南面 德峰里	유택치리	德峰里	德峰里	德峰里	德峰里	德峰里	德峰里	유택치리
北方面 田峰谷里	전치곡리	田峰谷里	田峰谷里	田峰谷里	田峰谷里	田峰谷里	田峰谷里	전치곡리
忠北 報恩郡 老峰里	노리리	老峰里	老峰里	老峰里	老峰里	老峰里	老峰里	노리리
中原郡 蘇台面 剛峰里	주리리	剛峰里	剛峰里	剛峰里	剛峰里	剛峰里	剛峰里	주리리
堤原郡 水山面 五峰里	오터리	五峰里	五峰里	五峰里	五峰里	五峰里	五峰里	오터리
丹陽郡 大洞面 稷峰里	적터리	稷峰里	稷峰里	稷峰里	稷峰里	稷峰里	稷峰里	적터리
慶北 奉化郡 奉化面 牛口峰里	우구터리	牛口峰里	牛口峰里	牛口峰里	牛口峰里	牛口峰里	牛口峰里	우구터리
慶南 義昌郡 鐵田面 栗峰里	울터리	栗峰里	栗峰里	栗峰里	栗峰里	栗峰里	栗峰里	울터리
固城郡 三山面 長峰里	장치리	長峰里	長峰里	長峰里	長峰里	長峰里	長峰里	장치리

본래 산지가 많아서 고개가 많은 우리나라는 그 지명에도 ‘고개·언덕’을 뜻하는 ‘峙’가 수없이 많이 쓰이고 있다. 庚戌年 일인들의 한국강점후 원활한 한국통치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大正 2年(1913년) 12월 舊韓國政府로부터 내려오는 全道の 府郡을 폐합 정리시키고 각도청은 또한 이를 기회로 面里洞을 폐합 정리시키는 일대 行政區域改編이 이루어졌다. 현 행정구역의 골격은 대부분 그 때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구역의 명칭 가운데 착오가 심한 것은 그 성격상 대부분 洞, 里名인데 지금의 洞, 里名도 대부분 그당시 행정구역을 통폐합시키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상기의 문헌 가운데 一字의 착오도 없는 것은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한 책 뿐이었다. 이 책은 日人 ‘越智唯七’이 저술한 것으로 그 서두에 밝혔듯이 ‘本書는 大正二年 十二月 二十九日付로 發付된 朝鮮總督府令 第 111號 道の 位置管轄區域 및 府郡의 位置管轄區域을 基礎로 하고 이에 그 후의 異動 및 各道의 大正 3年(1914年) 1月 1日 이후의 道令告示(官報에 掲載한)를 加味해서 大正 六年 四月 十日 現在로 부터 編輯한 것⁴⁰⁾으로 당시의 개편된 行政區域名稱과 改編以前의 명칭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문제가 되는 ‘峙’가 들어가는 洞·里 명칭에 대하여 본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정확하게 ‘峙’(고개치)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문헌들은 ‘峙’과 ‘峙’를 혼용하고 있으며 특히 內務部가 발행한 「地方行政區域要覽」과 韓國行政區域總鑑編纂會 발행의 「韓國行政區域總鑑」이 오기가 많았다. 1990년 발행된 「地方行政區域要覽」도 1987년판의 ‘三馬峙·酒飲峙·牛口峙’의 ‘峙’이 ‘峙’로 정정되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이다. 이들은 1993년판에서 ‘栗峙里’를 제외한 모두가 수정되었고 1996년판에 와서야 비로소 모두가 수정되었다. 그리고 「韓國行政區域總鑑」은 1994년판까지 대부분 수정되지 않은채 그대로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에는 더욱 심했던 것 같다. 李應百이 「地方行政區域便覽」

40) 越智唯七 編纂,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新舊對照, 京城: 中央市場, 大正 6年 (1917), 1985년 太學社 翻刻, p. 2.

(서울: 彰文閣, 1963)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지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時’는 84회, ‘𪛗’은 53회 쓰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⁴¹⁾ 분명한 것은 ‘𪛗’은 日字로서 ‘時’와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전혀 별개의 글자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기 쓰인 예가 없으며 일부자전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상’(필자주: ‘상’은 한국식 조음이다.)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日帝의 영향으로 日字가 흘러들어 와서 의미가 같고 자형이 비슷한 관계로 俗에 誤用된 것이 문헌에 그대로 등재됨으로서 혼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특이한 것은 ‘時’자가 들어가는 허다한 지명중 유독 상기한 지명에서만 착오가 발생한 것인데 이는 국가기관에서 지명을 조사할 때 그곳 관리들의 오기가 그대로 문헌에 활자화되어 연쇄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現地名의 한글음이 모두 ‘치’ 또는 ‘티’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內務部가 발행한 「地方行政區域要覽」이 1996년판에서 모두 ‘時’로 수정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時’는 현지명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이 쓰이고 있다. ‘時’는 제자전에 ‘우뚝 솟을 치·언덕 치’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고개 치’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기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에 따라 ‘치’와 ‘티’의二품으로 발음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지 확인 또는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기표의 지명들은 모두 한글음이 ‘치’ 또는 ‘티’이고 한자도 역시 ‘時’로 표기하며 𪛗으로 표기하는 곳은 한글데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𪛗’(상)으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그것은 ‘𪛗’의 음이 ‘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으로 독음하는 지명이 한글데도 없으며 또한 한국지명에 일본자를 쓸까닭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KS를 제정할 당시 철저한 사실확인 없이 문헌에 오기된 것을 그대로 수록하고 자전음으로 표기함으로써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𪛗’은 KS의 지명한자로는 불필요한 자이다.

셋째, ‘笹’(62-11: 세)字는 會意字로서 ‘竹’과 ‘葉’의 생략형인 ‘世’와의 合字

41) 李應百. 現代人名. 地名에 쓰인 漢字研究 - 基礎漢字와 관련해서 -. 語文研究, 4. 서울: 一潮閣, 1974. p. 175.

로서, 竹葉, 조릿대(작은 대나무의 총칭)의 뜻을 나타낸다. 품은 없고訓은 ‘쓰쓰’(사사: 조릿대)이다. 「新字典」에도 ‘笹(ササ)細竹’이라 하였다. 국내자전에 그 음을 ‘세’라 한 것은 형성자식 조음이다. 의미는 1) 群集해 살고 있는 가늘고 작은 대(竹)을 총칭한다. 2) 술(酒)의 別名이다. 3) 人名으로 쓰인다.(쓰쓰)

「大宇源」과 「漢韓大字典」(明文堂)에 모두 日字로서 ‘가는대 세’(細竹)라 하였다. KS 역시 음 ‘세’로 수록되어 있으나 어떻게해서 선발된자인지 알 수 없다.

넷째, ‘畑’(79-05: 전)字는 會意字로서 ‘火’와 ‘田’의 合字이다. 水田에 대하여 물을 살라서(燒) 開墾한 陸田·火田을 뜻한다. 품은 없고訓은 ‘하타’(하다) 또는 ‘하타케’(하다게)이다. 「新字典」에도 ‘畑(ハタケ) 밭’이라 하였다. 국내자전에 그 음을 ‘전’이라 한 것은 형성자식 조음이다. 우리말로 1) ‘밭’을 의미하고, 2) ‘영역·전문분야’를 의미하기도 한다.

「大宇源」에 1. 화전전(火畊田) 2. 日字로 밭전(田也)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明文堂) 역시 日字로 ‘밭 전’(田也)이라 하였다.

KS 역시 품 ‘전’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선정 경위는 알 수 없다. 「世界人名大事典」·現代人篇⁴²⁾ 등에 토오하타 세이이치(東畑精一)(1899- : 농업경제학자)등 ‘畑’가 들어가는 인명이 수록되어 있다.

다섯째, ‘梠’(79-62: 정)자는 엄격히 말해서 일본 국자는 아니다. 「康熙字典」은 「(字彙補) 同樞」라 하여 ‘樞’(널 구)와 동자라 하였으며, 「大漢和辭典」 역시 「字彙補」의 ‘梠은 同樞’라 한 기록을 들어 일본 국의자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본의인 ‘樞’의 의미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듯 「漢和辭典」(旺文社)은 일본 국자라 하였고 ‘樞’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S 역시 음이 ‘구’가 아니고 ‘정’인 것으로 보아 ‘樞’의 뜻이 아닌 일본자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梠’을 일본자로 할 때는 음은 없고 훈은 ‘마스’(마사)라 하며, 의미는 1) 목재의 나뭇결이 곧게 뻗은 것 또는 그러한 재목을

42) 世界人名大事典: 現代人篇. 서울: 文公社, 1973. p. 279.

뜻하고, 2) ‘まさき’(마사기)는 식물명으로 사철나무를 뜻하기도 한다. 「新字典」에 ‘桎(マサ) 나무결 고름’이라 하였다. 국내자전에 그 음을 ‘정’이라 한 것은 역시 형성자식 조음이다.

「大宇源」에는 2음자로 첫째는 ‘구’로 ‘桎’와 같다 하였고, 둘째는 ‘정’인데 이는 일자로 1. 나무바를 정(木之正) 2. 나무결이 좋을정(木理好貌)이라 하였다. 「漢韓大字典」(明文堂)은 순수한 일자로 ‘木理不亂·나무바를 정’이라 하고, 또 ‘桎同’이라 하였는데 이는 오류이다. ‘桎’이 ‘桎’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上記한 바와같이 日字도 아니고 그 풀이 ‘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KS는 풀이 ‘정’으로 收錄되어 있으나 어떻게 선정된 字인지 알 수 없다.

여섯째로 ‘臍’(85-93: ㄹ)자는 형성자로서 ‘臟器’를 뜻하는 ‘月’(肉)과 음을 나타내는 ‘萃’(ㄹ)가 합하여 만들어진 자이다. 소화기관의 하나인 ‘臍臟’(췌장)의 의미로 쓰이고 일본음은 ‘스이’(스이)이다.

「中華大字典」(中華民國 4년)에 ‘臍胰也 亦謂之膵肉 日本謂之臍’라 하여 ‘臍’과 마찬가지로 일본자임을 명시하였고, 「中文大辭典」과 「辭海」등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臍’는 분명 일본자이지만 ‘臍’과 함께 한국·중국등지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몇 안되는 특이한 자이다. 「漢和辭典」(旺文社)도 ‘國字였지만 중국에서도 쓰인다’ 하였고 「大漢和辭典」에도 ‘臍는 본래 國字’라 하였다. 「大宇源」에는 그냥 新字로서 ‘침육경 췌·지라 췌(膵肉經)라 하였고 「漢韓大字典」(明文堂) 역시 新字로 ‘췌장췌·이자췌(消化器官之一)라 하였는 바, 이는 ‘臍’과 마찬가지로 「新字典」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日字로 해야 옳을 것이다.

이상 KS에 수록되어 있는 일본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기한 일본자 가운데 ‘臍’는 ‘臍’과 함께 지금은 일본자로 국한되지 않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록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자들이 KS의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중 특히 ‘臍’은 문헌상의 오기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수록된 것이고, 나머지도 국내에서는 췌체로 쓰임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KS를 제정할

때 참고했다는 문헌중 「韓國新聞協會 共同文字코드表」 2-3水準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筴」은 IBM용한자에도 수록되어 있음)으로 보아 신문에서 일본관계 기사나 일본인명을 표기할 때 간혹 쓰인 자들이 아닌가 생각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보다 쓰임이 많은 수많은 자들을 제외하고 이들을 수록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KS의 誤謬

1. 음이 잘못되자.

法(겁) : '法'은 KS行列番號 44-06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음이 '겁'으로 되어 있으나 '法'은 현재 그 음이 '장'으로 地名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古文獻에는 有字無音字로 알려져 있는 固有漢字이다.

본자는 본래 音義未詳의 漢字로 「字彙補」(大漢和辭典, 諸橋徹次 著)에 실려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래'라는 俗訓으로 또는 '法村處'라는 지명으로 쓰였으나 역시 無音義字로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⁴³⁾에서 그 음이 '怯'이라 하고 또한 '不知何音義'라 하여 모순을 드러내었다.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뒤 출간된 「字典釋要」에서는 '자래 거'로 六堂의 「新字典」에서는 '자래 겁'이라 하였다. 역시 이들의 영향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國史大事典」(李弘植 編)에서 '法村處'를 '거촌처'라 하였고 「漢韓大字典」(明文堂)에서는 '거'와 '겁'의 二音字로 하고 있다. 아마도 이들 음이 생성된것은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法'은 그 음이 '거'도 아니고 '겁'도 아니다. 현재 慶尙北道 達城郡 求智面에는 '法里'(정리)라는 행정구역명이 있다. 名稱 由來를 보면 '본래의 洞名은 지계 가지 위에 짐을 얹은 것과 같이 지형이 생겼다 하여 負底洞이

43) 李圭景 著. 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 古典刊行會, 檀紀 4292年. p. 427. 影印本.

라 하였으나 이조 선조 末葉(1600년경) 鄭寒岡 先生이 여러가지 환경과 地形조건을 감안하여 한데 묶어야 한다는 뜻으로 透洞이라 불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다.⁴⁴⁾ 이로 볼 때 ‘징’이라는 음은 본래 ‘짐’에서 오지 않았나 싶으나⁴⁵⁾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어쨌든 지명한자로 취합된 ‘迄’을 확인 없이 잘못된 字典音인 ‘겁’으로 한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邯(감) : ‘邯’(42-91)은 人名 ‘姜邯贊’(948-1031)에서만 ‘감’음으로 읽히는 字이다. ‘邯’은 본래 「康熙字典」에 의하면 첫째는 그 음이 ‘한’(胡安切, 河干切)으로 趙國에 邯鄲縣이 있다 하였다. ‘邯鄲’(한단)은 戰國時의 趙나라 서울이었던 관계로 현행 자전들에 ‘조나라 서울 한. 현이름 한’으로 訓되고 있다. 邯鄲은 또한 古事成語 ‘邯鄲之夢’과 ‘邯鄲之步’(또는 邯鄲學步)로 우리에게 친숙한 자이다. 그리고 또한, ‘水名’으로 鄴州에 있다 하였다.

둘째는 그 음이 ‘함’(胡甘切)으로써 ‘邯’(염함)은 漢의 縣名으로 樂浪郡에 속한다 하였다.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에 ‘현이름 함’이 실려 있다.

셋째는 역시 韓國音으로는 ‘함’(戶感切)으로 ‘邯淡’은 ‘豊盛之意’라 하였다. 「漢韓大字典」(明文堂)에는 ‘풍성할 함’이라고 실려 있다. 이러한 사실은 「大漢和辭典」(諸橋轍次)과 동일하다. 즉 ‘邯’은 韓國音으로는 ‘한’과 ‘함’뿐인데 姜邯贊에서 만든 ‘감’으로 讀音한다. 현행 字典들 가운데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오직 「大宇源」과 「새漢韓辭典」(東亞出版社)만이 ‘감’음을 수록하고 있는데 「大宇源」은 ‘함’이 ‘감’으로 변환것으로 하여 ‘함’을 原音으로 하였고 특히 「새漢韓辭典」은 ‘현이름 함’과 함께 ‘감’음을 수록하고, 註에 ‘高麗 名將姜邯贊(筆者註: 國史大事典, 韓國人名大事典, 高等學校 國史 教科書등에는 ‘贊’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贊’은 ‘贊’의 오류인 듯함)의 ‘邯’은 음이 ‘감’

44) 행정구역연혁 및 지명조사 유래표. 求智面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未刊資料임. 文書番號 11-9-9으로 面事務所에 보관되어 있음.

45) 李春澤·情報交換用符號에 포함된 固有漢字考·文獻情報學報 第5輯. 서울: 中央大學校 文獻情報學科, 1993. pp. 157-164.

으로 俗音化 하였다.⁴⁶⁾고 하였다.

KS에는 ‘한’, ‘함’⁴⁶⁾에는 없고 ‘감’⁴⁶⁾으로만 수록되어 있는데 ‘邯鄲之夢’과 ‘邯鄲之步’가 흔히 쓰이는 古事成語임으로 보아 姜邯贊이 유일한 예인 ‘감’에만 수록한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炯(경) : ‘炯’(44-62)은 KS에 ‘경’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人名 등에서 ‘형’으로 쓰이는 자이다. 「集韻」에 音은 ‘俱永切’이고 義는 ‘炎蒸’이라 하였다. 「大宇源」에는 ‘炯’은 ‘경(集韻) 俱永切·불김 경(炎蒸)’이라 하였고 또 「漢韓大字典」(明文堂)에는 ‘무더울 경’(炎蒸)이라 하였다. 그리고 또한 ‘日本의 字書類에 炯의 俗字라고 하였는데 의문이 많다. 국내 字書類에 ‘炯’字를 音이 ‘형’이라 하였는데 잘못이다.’ (按日本字書類, 謂炯俗字, 疑多, 國內字書類, 炯字, 音형, 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炯’의 音이 ‘俱永切’이고 뜻은 ‘炎蒸’을 나타내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新修康熙字典」⁴⁷⁾에는 ‘炯’은 ‘音은(集韻) 俱永切·音廻’이고, ‘義는 炎蒸’이라 하여 「集韻」의 俱永切에 ‘音廻’이란 말을 추가하였고, 「大漢和辭典」(諸橋轍次)에는 「康熙字典」의 주석외에 「正字通」의 예를 들어 ‘炯의 俗字·(正字通)炯, 俗炯字’라 하였다.

國內字典중 「漢韓大字典」(民衆書林)과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에는 설명없이 그냥 ‘炯’은 ‘炯의 俗字’라고만 하였다. 이로 볼 때 ‘炯’이 ‘炯’의 俗字로 쓰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또한 ‘炯’은 「廣韻」에 ‘戶頂切 又音頰’과 ‘古迴切 又音迴’이라 하였고, 「集韻」에도 ‘戶茗切’과 ‘耿迴切’이라 하였다. 그리고 「新修康熙字典」에는 (廣韻) 戶頂切 (集韻) 戶茗切 並音迴과 (唐韻) 古迴切 (集韻) 迴切 並音迴이라 하였다. 이로 볼 때 ‘炯’ 역시 ‘경’과 ‘형’ 二音字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大漢和辭典」은 「集韻」의 ‘戶茗切’만을 수록하여 一音字로 하였고, 國內諸字典 역시 一

46) 東亞出版社 編輯局 編. 새漢韓辭典. 서울: 東亞出版社, 1990.

47) 張玉書等 總閱, 凌紹安等 纂修, 高樹藩 重修. 新修康熙字典. 台北: 啓業書局, 中華民國 75年. p. 976.

ㅍ자로 하였으며 실제로 ‘형’—ㅍ 만으로 쓰이고 있는 듯하다.

한편 ‘炯’의 실제 用例를 살펴보면, KS를 제정 할 때 人名用漢字를 선발하는데 참고한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에는 朝鮮朝 武臣으로 ‘宣炯’이라는 人名이 나오는데 분명히 ‘선형’으로 되어 있고, 「韓國人名辭典」(聯合通信社)에도 圓光大學校 法學科 教授인 ‘明炯植’이라는 인명이 있는데 한글음은 나와 있지 않으나 영어로는 ‘MYUNG Hyung Shik’으로 되어 있어 분명히 ‘형’임을 명시해 주고 있다(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이 두사람 뿐이었고, ‘경’으로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炯’은 본래 ‘炎炘’을 나타내는 ‘경’과 ‘형’ ㅍ의 二音字이며, 또 ‘炯’의 俗字로 쓰였으나 지금은 주로 ‘炯’의 俗字로 人名에만 간혹 쓰이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국내의 字典類에서는 모두 一音字로 ‘경’ 또는 ‘炯의 俗字’라고만 하였는데, 두음을 모두 수록하여 二音字로 함이 옳을 듯 하며, 특히 「漢韓大字典」(明文堂)의 「國內書類에 炯字를 ㅍ이 형이라 하였는데 잘못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新修康熙字典」등에 ‘炯’의 ‘ㅍ이 迥’이라고 한 사실과 상기한 바와 같이炯의 俗字로도 쓰임을 볼 때 오류라 하겠다. KS 역시 그 調査對象資料에 모두 ‘형’으로 되어 있는 데 ‘경’으로만 수록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贊(윤) : ‘贊’(75-43)은 KS에 ‘윤’음으로만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人名 등에서 ‘빈’ㅍ으로 쓰이는 자이다.

「康熙字典」에 ‘ㅍ은(廣韻) 於倫切(集韻) 紆倫切 竝音贊, 義는 美好貌’라 했고 「大漢和辭典」에도 ‘(集韻) 紆倫切’이라 하였다. 그리고 「漢韓大字典」(明文堂)에 ‘贊’은 ‘예쁠 윤. 아름다울 윤’(美好貌)이라 하고, ‘생각해 보건대 贊字를 ㅍ이 빈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廣韻에 於倫切이라 했고 集韻, 韻會에 紆倫切이라 했다. 아울러 ㅍ이 韻(머리글 韻)이다. 빈ㅍ은 必是 머리에서 취한 ㅍ(筆者註: 斌字는 ㅍ이 빈이다.)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今後 是正을 간절히 요망한다.’(按 贊字 ㅍ빈 誤. 廣韻 於倫切 集韻 韻會 紆倫切 竝音 빈ㅍ必是頭取音 不然不知何據 今後是正切要)

라고 註하였다. 이로 보건대 ‘贊’의음이 ‘윤’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그 음이 ‘빈’으로 변하여 지금은 거의 ‘빈’음으로만 쓰이고 있는 듯하다. 「漢韓大字典」(民衆書林)은 ‘贊’은 ‘예뵈 빈’, 「大宇源」(張 三植), 및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과 「漢字大典」⁴⁸⁾ 등에는 ‘예뵈 빈. 아름다울 빈’이라 하고 原음 또는 本음이 ‘윤’이라 하였다.

한편 本字의 실제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KS가 참고한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에는 ‘贊’字를 쓴 人名이 셋이 있다. 이 윤(李 贊 : ?~1388 : 高麗때 武臣)과 이 우윤(李 佑贊 : 1792~1855 : 朝鮮時代 學者)과 조 윤(趙 贊 : 1587~? : 朝鮮時代 文臣)이 그들이다. 그런데 同一인들이 「韓國人名字號辭典」⁴⁹⁾에는 이 빈(李 贊), 이 우빈(李 佑贊), 조 빈(趙 贊)등으로 그 음을 달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표 빈(表 贊 : 中宗때 文人), 김 응빈(金 應贊 : 朝鮮時代 學者), 김 빈길(金 贊吉 : 朝鮮 太宗때 武臣)등이 있는데 모두 ‘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韓國人名辭典」(聯合通信社 : 1989)에는 ‘咸 鍾贊’(石 泉) HAHM Chong Bin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상기한 인물들은 모두 歷史的인 人物들이라 그들의 人名을 실제로 어떻게 불렀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咸氏만은 현재 生存하고 있는 人物로써 陸士교수를 지냈고 5代 民議員을 지냈으며 9代 國會議員을 지낸 人士로 그 이름 字의 음을 잘못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합 중빈’으로 독음하고 있다. 그리고 李應百이 현용 서울 시내 전화번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贊’이 ‘빈’으로 쓰인 경우가 한번 있고, ‘윤’으로 쓰인 적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볼 때 ‘贊’이 전에는 ‘윤’으로 쓰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분명히 ‘빈’음으로 쓰고 있으며, 그것은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 및 「大宇源」에 ‘예뵈 빈. 아름다울 빈’이라 하고 本음이 ‘윤’이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 이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윤’이 빈으로 俗音化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8) 李家源, 張三植 共著. 漢字大典. 서울 : 裕庚出版社, 1973. p. 747.

49) 李斗熙 等編. 韓國人名字號辭典. 서울 : 啓明文化社, 1988.

KS는 ‘홉이 정착되지 못한 文字’로써 ‘贊’과 ‘濼’ 두자를 들고 있는데 ‘贊은 홉이 “빈” 또는 “운”으로 논란이 있어 「康熙字典」홉이 “운”이므로 “빈”으로 하지 않고 “운”으로 배열’했다 하였다. 그러나 ‘贊’의 原음이 ‘운’이라 할지라도 人名 이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고 현재는 ‘빈’음으로만 쓰이고 있는데 ‘운’에 배열한 것은 現實音을 도외시 한 것으로 옳치 않다 하겠다.

椀(완) : 椀(72-04)은 보통 ‘관’으로 쓰이는 字인데 KS에는 ‘완’음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字는 홉이 상당히 복잡한데 우선 「新修康熙字典」을 보면 그 홉이 첫째 [唐韻]苦管切. [集韻]苦緩切. 竝音款. [廣韻]胡管切. [集韻]戶管切. [韻會]合管切. 竝音緩. 이고 義는 (一)‘虞俎名’으로 註에 ‘虞俎名椀 椀形四足 如案’이라 하였고, (二)는 ‘斷木也’라 하였다. 이로 볼 때 ‘椀’의 홉은 첫째가 ‘관’과 ‘환’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韻會]胡官切. 音桓이고 義는 ‘木名’인데 韓音으로는 역시 ‘환’이다.

셋째는 [集韻]胡慣切. 音患이고 義는 ‘木名’으로 역시 韓音으로는 ‘환’이다.

넷째는 [集韻]胡昆切. 音魂과 역시 [集韻]의 奴玩切. 音讞이고, 義는 ‘椀枝也’인데, 韓音으로는 ‘혼’과 ‘완’이다.

다섯째는 [說文]胡本切 과 [集韻]戶袞切. 竝渾上聲이고, 義는 ‘木薪也 : 又木末破也’로 韓音은 ‘혼’이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反切音은 韓音으로는 관·환·혼·완으로 四音字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國內字典에는 하나같이 ‘관’음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즉 「漢韓大字典」(民衆書林)과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이 똑같이 ‘도마 관’이라 하였고, 「大字源」(張 三植) 역시 ① 네발도마 관. ② 나무토막 관이라 하였고 原음이 ‘환’이라 하였다. 그러나 「漢韓大字典」(明文堂)만은 1. 네발달린 도마 관. 2. ‘환’으로 義同. 3. 가지 혼(椀枝)로 三音字로 하였으나 역시 ‘완’홉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漢字大典」에 ① 네발도마 완(四足俎) ② 토막나무 완(斷木)이라 하였으나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字는 또한 大法院이 제정하여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人名漢字(2,854자)에도 포함되어 있는 바 (朝鮮日報. 1991. 3. 22일자. 21면)역시 그

핀은 ‘관’이다. 用例를 찾기 위해서 KS를 제정할 때 참고했다는 「國史大事典」 「韓國人名大事典」 「韓國人名辭典」등을 모두 살펴 보았으나 발견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기의 사실로 볼 때 ‘洈’의 음이 ‘관’인것 만은 분명한 사실이며 KS가 그음을 ‘원’으로 한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2. 漢字 自體가 잘못된 字

岫(65-92)는 글자 自體가 틀린 자이다. ‘岫’는 地名漢字로 취함된자로 ‘岫’자가 들어가는 지명으로는 4곳이 있다. 먼저 그 실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全北 完州郡 三禮邑에 ‘岫溪里’(수계리)가 있다. 岫溪里는 본래 全州郡 昌德面 지역으로 明治 40年(1907) 발행의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및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 의하면 ‘岫溪里’로 표기되어 있으나 內務部 발행의 「地方行政區域要覽」(1987, 1990)에는 ‘岫溪里’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慶北 漆谷郡 架山面에 ‘龍岫里’(용수리)가 있다. 龍岫里는 본래 東北面 소재로 ‘岫洞’이라 하였는데 日帝의 行政區域 改編시 岫洞과 龍溪洞, 龍谷里 일부를 합하여 龍岫洞이라 하였고 후에 龍岫리가 되었다. 상기 두 문헌에는 모두 岫洞으로 되어 있으나 「地方行政區域要覽」에는 龍岫리로 표기가 바뀌고 있다.

또한 淸道郡 伊西面에는 ‘文岫里’가 있다. 文岫里는 본래 次北面 소재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文岫洞’,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는 ‘文岫洞’이라 하였는데 「地方行政區域要覽」(1990)에는 ‘文岫里’로 표기되고 있다.

그리고 慶南 梁山郡 鼎冠面에 ‘龍岫里’가 있는데 이는 본래 東萊郡 鼎冠面 소재로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과 「地方行政區域要覽」(1987)에는 ‘龍岫里’로 표기하였는데 1990년의 「地方行政區域要覽」에는 ‘龍岫里’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土地開發公社 발행의 「全國 里洞·邑面 行政區域索引」(1986)에는 한결같이 ‘岫’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同一地名에서 ‘岫’와 ‘岫’가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康熙字典」에 의하면 ‘岫’는 ‘山穴也, 山有穴爲岫’라 하고 註에 ‘謂巖穴’이라 하였다. 그리고 ‘岫’는 ‘古邦字’라 하여 音도 義도 ‘岫’와는 전혀다른 別字이다.

국내사전 역시 마찬가지로 ‘岫’는 ‘바위구멍 수’(大漢韓辭典), ‘산굴 수’(漢韓大辭典)라 하고 「康熙字典」의 註를 인용한듯 모두 ‘岩穴’이라 하였다. 그리고 ‘岫’는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역시 ‘邦의 古字’라 하였다. 특이한 것은 ‘岫’는 어느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康熙字典」에 ‘岫’는 이체로서 ‘或作岫, 窰’이라고만 하여 ‘岫’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른 모든 사전에도 ‘岫’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형상으로 볼 때 같은 예가 많기 때문에 ‘岫’가 ‘岫’의 異體字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岫’ 또는 ‘岫’가 포함되는 지명 가운데 상기한 바와 같이 전에는 모두 ‘岫’를 썼는데 지금에 와서 그 중 한곳(全南 靈光郡 白岫邑에 ‘九岫里’가 있다.) 만을 제외하고 모두 ‘岫’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KS한자집합에는 상기 地名에서 취한듯 岫(65-91)와 岫(65-92)이 同字인데 ‘둘 다 지명에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채택한다 하였다. 그렇다면 ‘岫’는 상기한 바와 같이 ‘岫’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는 ‘岫’와 ‘岫’의 字形의 유사에서 야기된 혼란에서 기인한 듯한데 KS처럼 ‘岫’를 취한다면 ‘邦의 古字’로서 音도 ‘방’이 되며 現지명과는 상관 없는 別字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地方行政區域要覽」에도 ‘龍岫里’, ‘文岫里’등은 岫로 옳게 표기되어 있다.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되지만 漢字는 一點一劃이 중요하여 자칫 잘못하면 위와 같이 엉뚱한 字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駮’(69-34) 역시 漢字 自體가 틀린 자이다. 이런 자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비슷한 자로는 ‘駮’와 ‘駮’이 있는데 ‘駮’는 그 음이 以駮切로 ‘이’가 된다. 「康熙字典」 및 「大漢和辭典」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내 사전중에는 「大字源」에 ‘업신여길 이. 쉽게말할 이’로 수록되어 있다. ‘駮’은 ‘揚’의 古字로 제자전에 수록되어 있다. ‘駮’의 音이 ‘양’인 것으로 보아 駮의 誤字가 아닌가 싶다.

V. 結 言

한국공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KS C 5601-1987)는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는다. 이 완성형 정보교환용부호가 처음 발표된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한글코드에 집중되어 그 동안 많은 비판의 글과 紙上論爭 등을 통하여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급기야는 조합형 코드까지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반면에 한자코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식적 반응 조차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그 숫자의 방대함으로 一瞥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한자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KS C 5601의 한자코드에 대해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문제점은 用語의 定義에 대한 것이다. KS의 도형문자 8,224자 가운데 漢字는 4,888字로서 근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KS는 한자를 한글과 병행해서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中國文字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발생론적 의미만을 강조한 것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적절치 못한 정의이다.

둘째는 漢字集合 自體의 문제점이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漢字選定에 있어서의 문제점 : 公正性和 衡平性이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원칙없이 專門委員들이 임의로 字種을 선정한 결과 조사자료의 分布度 및 頻度數가 무시되어 다수의 고빈도자가 누락되고 저빈도자가 수록되었고 꼭 필요한 한자로써 한국인의 姓氏 가운데에서도 누락된 자가 4자, 異音으로만 수록된자가 3字이며, 地名漢字 가운데에는 누락자가 4자, 異音으로만 수록된자가 8자 였다.

2. 字體의 문제점 : KS는 字體는 康熙字典에 준한 正字體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분야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약자의 사용과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이를 허용한다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변이를 허용할 성질의 것

이 아니며 KS자체 역시 원칙없이 무질서하게 채택하였다.

3. 配列體系의 문제점 : KS는 音順配列體系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자형의 重出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KS한자코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에서 파생된 문제점은 KS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1) S/W에서 처리 해야 할 것을 규격으로 함으로서 S/W의 개발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 코드영역의 낭비를 가져왔고 3) 다양한 한자음의 수용을 방해하였으며 4) 그리하여 국어 音韻法則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5) 따라서 수록된 한자라 할지라도 그 음이 다른 것은 음을 빌려서 入力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6) 경우에 따라서는 變음이 채택되어 음을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7) 誤謬가 많이 발생하며 8) 마지막으로 統승코드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다.

4. 略字의 누락 : KS는 강희자전에 준한 정자체를 원칙으로하여 약자를 누락시킴으로서 시대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5. 配列의 문제점 : 명확한 배열의 細部規定이 없어 同一音, 同一部首에 同劃字들이 원칙없이 배열되었고 部首의 誤認으로 잘못 배열된자가 16字, 劃數算定의 착오로 잘못 배열된 자가 3字 였다.

6. 日本字의 문제 : KS에는 鱒. 峠. 腺. 笹. 畑. 柎. 膾 7자의 日本字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峠'은 '峙'와의 혼동으로 잘못 선정된 자이고 笹·畑·柎등도 불필요하게 수록된 자들로 사료된다.

셋째는 KS의 오류이다.

1. 音이 잘못된 字 : '諗'은 실제음이 '징'인데 '집'으로 수록되었고, '邯'은 보통 '한'으로 讀音되나 '감'음으로 수록하였다.

'爛'은 실제 '형'음으로 쓰이는 자인데 '경'으로 수록하였고 '贊'은 原음이 '운'이고 실제음은 '빈'으로 人名 등에 쓰이고 있으나 KS는 原音인 '운'으로만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椀'은 그 음이 '관'인데 KS는 '완'으로 잘못 수록하였다.

2. 漢字 自體가 잘못된 字 : '岬'는 한자 자체가 틀린자로서 '岬'로 바로잡

아저야 하고, ‘數’역시 한자 자체가 틀린자로서 ‘數’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the Kore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Choon-Tack Lee*

〈Abstract〉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It is questionable to define the term "Hanja" as "the Chinese Character used independently or used along with Hangul.
2. It is found to be a problem that the validity and objectivity in the selection of Hanja are lacking.
3. It is also a problem that there is neither principles nor consistency in styling of characters.
4. The system of arrangement has problems, too. The adoption of arrangement of Hanja by its Korean pronunciation results in lots of errors and mistakes. Besides, mistaken strokes and radicals produced considerable errors in the arrangement of Hanja.
5. The omission of the abbreviated Hanja in the Code can be considered to neglect the current trend of increased use of them.
6. The issue concerned with the Japanese-origin Hanja is that several number of Hanja deemed unnecessary are included.

*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